

올 추석 차례상 비용 상승

전통시장 23만7800원으로 전년보다 4% ↑

대형마트 33만6800원으로 전년보다 6.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립비용이 전통시장 23만7,800원, 대형유통업체 33만6,8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6.6%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일 기준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다.

긴 장미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상승했으며, 생육

부진으로 대과의 비중이 감소한 계수용 사과와 수인이 줄어 국내산 수요가 증가한 반도 상송새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추석 전 2주간 사과, 배, 쇠고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년대비 1.3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안심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e-하나마트, 한돈몰 등을 통해 성수품을 10~50% 할인판매하고, 공영 흡소품의 명절 성수품 판매 방송

을 집중 편성하는 등 비대면 구매채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aT 백태근 수급관리처장은 “추석을 앞두고 가계의 알뜰소비를 돕기 위해 앞으로 17일과 24일 두 차례 더 추석 성수품 구입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aT가 제공하는 알뜰소비 정보가 합리적인 명절음식 구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 구입비용의 상세정보와 관련자료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직거래장터 등 오프라인장터 정보는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10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새로 개발한 국산 포도 품종 '스텔라'를 수확하고 있다. 올해부터 묘목을 보급하는 '스텔라'는 당도(18.5브릭스)가 '사인머스켓'과 비슷하고 체리향이 나며 포도알 모양이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독특하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수출바우처 170만불 상담 진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전북코트리지원(단장 이광일)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0년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 결과, 46건 약 170만불의 상담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2~15일 공개 모집한 중기부 및 전북형 수출바우처 선정기업 또는 예비 참여기업 58개사가 참여했으며, 이 중 31개 기업과 해외 11개국 27개사가 총 46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10건 약 170만 불의 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액수가 논의됐다.

또한 현재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바이어가 관심을 보인 간편식, 마스크 등 홈코노미 제품은 추가 상담 및 향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전북농산물 특별판매전'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전국 이마트(140점포)매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전북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함께 기획한 '코로나19 극복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열고 있다.

이번행사는 전북농산물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이마트와 함께 2016년부터 5년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농산물 6개 품목(사과, 배, 포도, 멜론, 고구마, 미니오이, 당조고추)과 예담채 십리향(十里香)쌀을 판매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막행사를 취소하고 이마트 전단지홍보와 타임세일 및 매장 안내방송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북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고당도 포도 '스텔라' 개발 모양도 예쁘고 향도 독특

포도알 달걀 모양으로 당도는 사인머스켓과 비슷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모양과 향이 독특한 고당도 포도 '스텔라'를 개발하고 품종 보급에 나선다.

'스텔라'는 맛과 간편성 등을 중시하는 최근 포도 소비 경향을 반영해 만든 품종이다. 포도알 모양이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도란형으로 독특하고, 당도는 18.5브릭스(Bx)로 청포도 '사인머스켓'과 비슷하다.

다른 품종보다 산 함량(0.44%)이 약간 높아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유기산 중 시키믹산(shikimic acid) 함량이 높아 체리 '좌등금' 품종과 비슷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익는 시기는 9월 초이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배할 때는 꽃 피기 전 새 가지의 생장이 빠른 경우 꽃봉오리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나무 자랄새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 나무 사이 간격을 어린나무는 3~5m, 다 자란 나무는 7~10m로 넓게 하는 것이 좋다.

농진청은 '스텔라' 보급을 위해 현재 경기, 충남, 전북 지역에서 시험 사업을 진행 중이고, 10개 업체를 통해 묘목을 판매하고 있다. 보급 문의는 과수과(063-288-6743)로 하면 된다. 아울러 재배 농업인, 유통 관계자, 소비자 등 '스텔라'의 과실 특성과 재배 유의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비대면 평가회(유투브, 네이버 밴드)를 통해 영상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정관 과수과장은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맛과 향, 모양이 독특한 과일에 지갑을 열고 있다"라며 "'스텔라'의 독특한 향과 모양은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경향과도 잘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홍수피해 농가 긴급경영자금 지원

전북우정청 '재해펀딩' 순창군과 공동 운영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홍재)과 순창군(군수 황숙주)은 이번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순창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재해펀딩'을 공동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해펀딩은 홍수피해 농가의 상품을 우체국쇼핑몰(mall.post.go.kr)을 통해 예약 판매해 마련된 재원을 피해농가에게 긴급경영자금으로 지원하고 피해농가는 수확 후 상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재해펀딩은 11월 초 수확 예정인 미니리(즙)를 평소보다 14일부터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예약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해농가의 긴급경영자금으로 지원하며 구매자는 11월 초부터 선주문한 미니리(즙)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해펀딩 구매자들은 평소 인기에 판매되었던 가이아 농장의 미니리(즙)를 평소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함과 동시에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도 동참할 수 있다.

또한, 피해농가의 소득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할인을 소요되는 예산을 전북지방우정청과 순창군이 공동으로 출현한다. /김윤상 기자

세상에 빛(안정적 전력공급)을
이웃에 사랑(사회공헌활동)을
전합니다.

한국전력 부인지사
지사랑 문 형 식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터 조성

중기중앙회, 중기 '건강한 일터' 자가진단 모형 최초 개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스스로 우리 회사 일자리가 청년구직자가 선호하는 일 자리 요소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중소기업 '건강한 일터' 자가진단 모형 개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지속되고 일자리 질(質)이 양극화되고 있는 세대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일터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청년구직자가 희망하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건강한 일터' 자가진단 모형은 연봉수준, 성과보상, 근무환경, 기업건전성, 조직문화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내부 임직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바탕으로 '일터 건강도'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일터 건강도'는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위 5개 분야에 대한 총 13개 문항별 임직원 만족도와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해 계산할 수 있으며, 각 임직원의 '일터 건강도' 평균값이 기업 단위의 '일터 건강도'가 된다. '일터 건강도'의 분야별 가중치는 청년구직자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과보상(27.3%), 조직문화(22.7%), 근무환경(18.3%), 연봉수준(17.8%), 기업건전성(13.9%)으로 정해졌다.

청년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중 ▲237만원 수준의 월 급여 ▲일 자체를 즐겁고 재미있게 하면서 개인 생활을 존중받는 조직문화 ▲출퇴근이 편리하고 복지제도가 우수한 근무환경 ▲고용이 안정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 ▲연봉 외 인센티브를 갖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봉 수준(17.8%) 및 연봉 외 인센티브(16.5%) 등 금전적 보상관련 지표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가진단 모형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에 ▲유대가 독특한 가족같은 조직문화 ▲최신식 시설을 갖춘 근무환경 등 표면적인 요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개인교육 지원 및 조기 승진은 상대적으로 낮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 의향이 있는 청년구직자에 한정해 진행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건강한 일터 개념을 발굴하고자 했고, 13개 문항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각 임직원이 느끼는 '일터 건강도'와 기업 단위 '일터 건강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청년구직자들이 중요시하는 요소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서의 차별성을 갖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연구 발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출발선으로서 중소기업계가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안정적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소기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청년들의 인식개선이 동반되어 상상력과 사회적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